

## 바이오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책임기

흐 드리지게 핀 코스모스를 흔드는 가을바람이 청량하다. 시나브로 하늘은 높아지고 날씨는 선선해 여행하기에 좋은 철이 바로 가을. 하지만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등화가친(燈火可親)하며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효소를 전문으로 다루는 바이오벤처기업 엔지뱅크는 한 달에 한번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읽은 책의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내 '북클럽' 시간이다.

2년 전 독서 경영의 중요성을 깨달은 신현재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북클럽은 초창기에는 한 권의 책을 정해, 돌아가며 읽는 방법으로 팀워크와 지식공유를 함께 도모했다. 그리고 북클럽이 사내에 완전히 정착한 이후부터 각기 다른 책을 정해 읽고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발표시간은 한 사람당 20~30분 사이, 한 번의 모임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발표를 버리고 준비를 단단히 해온 사람은 장황해지기 일쑤인 반면 업무에 노곤한 사람은 꿈나라를 헤매기도 한다.

저녁에 일정이 잡히면 모임은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동한다.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다음 날 기억 상실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나오기도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북클럽에서 2년간 읽은 책은 경영, 마케팅을 비롯, 인문사회 서적 및 시집을 포함해 150여 권에 이른다. 최근 북클럽에서는 마케팅의 실무에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작은 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한 지식의 공유가 무척 중요합니다."

북클럽의 멤버이자 든든한 후원인인 신대표의 독서 경영의 신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 밥을 굶어도 책임기는 굶지 않는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개인이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다. 엔지뱅크 내 북클럽처럼 회사 내 직원들끼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서늘한 가을 저녁,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독서 토론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의 열띤 모습은 작은 효소로 세상을 바꾸는 힘의 원천이라 할 만하다.

